

말의 격랑으로 읽는 촛불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년여 전 광화문을 뒤흔들었던 촛불 시위는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통령이 탄핵된 후 구속되고 주변의 많은 권력자들이 법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 사회에서 간간히 등장하는 촛불 시위는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에, 한국에서 등장한 사회 운동의 한 유형으로 설명될 정도로 유명해졌다. 다른 사회 운동 형태에 비해 상징성과 이미지 효과가 큰 촛불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렇긴 하지만 촛불이 강력한 정치·사회적 힘을 발휘한 것은 그와 함께 표출된 말들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촛불과 함께 등장했던 말들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 낸 말들을 되살리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촛불의 이미지를 말의 메시지와 함께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뜻이 깊다. 이 글에서 촛불과 함께 표출되고 언표되었던 말의 격랑, 언어의 결집, 뒤엉킴, 부딪침을 짧게나마 생각해 보려 한다.

말문의 열림

우리말에 말문이라는 단어가 있다. 말과 문을 연결한 그 상상력이 흥미로운 어휘다. 말문이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는 표현에서 보듯 말이 표출되는 최종 지점에 그것을 막아서는 어떤 힘, 마음속의 말을 끝내 드러내지 않고 움켜쥐게 만드는 장벽이 있다는 실감에서 만들어진 표현이라 하겠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좀처럼 말을 잘 쏟아 내지 않던 개인이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평소와는 달리 엄청난 힘으로 말들을 쏟아 내는 때를 만나게 된다. 나는 이번의 촛불은 거대한 규모로 말문이 열린 상황, 오랫동안 닫혀 있던 우리 사회의 집합적 소통의 대문이 활짝 열린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촛불은 말문을 여는 열쇠 노릇을 했다. 촛불을 들고 어두워진 광화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말의 문이 열렸고 알지도 못하는 옆 사람과 대열을 이루어 구호를 합창했다.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었고 박수와 함성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말들을 내놓았다.

그 현장에서 나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Exit, Voice, and Loyalty)》라는 책을 저술한 앨버트 허슈먼(Albert O. Hirschman)이란 학자를 떠올렸다. 그는 기업이나 조직, 국가에 충성심이 사라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을 떠나기(exit)와 말하기(voice)로 개념화했다. 한국의 낯익은 표현을 빌려 보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식의 행동이 떠나기이고 절다운 절을 만들라고 주지 스님에게 대드는 것이 말하기인 셈이다. 허슈먼의 논리는 이후 여러 곳에 활용되어 독재 정권하에서 묵묵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의 상이한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자주 언급되었다. 내가 보기에 수많은 촛불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말할 정도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좌절감을 떨치고 분연히 ‘말하기’를 선택한 사람들 자체였다.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상의 말이 달혀서가 아니라 소통 부재의 공공 영역에 대한 답답함과 속상함에서 연유한 어떤 증세였다. 기가 막힌다거나 말이 안 나온다는 표현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대한 거부감과 낭패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국가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지닐 수 없었던 사람들은 뉴스를 들 때마다 말문이 막혔다. 세월호가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가라앉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었던 수많은 학생들이 그대로 희생된 상황은 모두의 기를 막고 말을 잃게 했다. 이들은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다는 것으로 마음속의 정서를 표하고 자 했다.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된 사건을 접하면서 경악한 시민들의 말문도 막혔다. 그들 역시 노란 스티커를 강남역에 붙이는 것으로 말을 대신했다. 구의역에서 한 순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사고사한 사건 역시 청년층은 물론이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슴을 막히게 만든 일이었다. 그렇게 답답하던 심정, 달혀 있던 말문이 최순실이라는 숨겨졌던 인물이 드러나고 최고 권력자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순간 분노와 함께 터졌다.

촛불은 한국 사회가 싫다고 떠나기를 선택하기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표명하고자 생각한 사람들이 선택한 의사소통의 한 형태였다. 촛불은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물음으로 표현되던 좌절감과 열패감이 새로운 언어로, 공통의 사회적 발언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다. 마치 종교 의식을 치르듯, 때로는 문화 공연을 하듯 행진하던 수만, 수십만의 무리는 목청껏 내놓고 싶었던 마음속의 많은 말들을 표어로, 구호로, 발걸음으로 드러내곤 자 했던 것이다. 나는 촛불과 말들이 엄청난 규모로 모여들던 당시의 상황이 마치 여름철 폭우로 생겨난 거대한 물살 같았다고 느꼈다. 강바닥까지 훑으며 한바탕 대청소를 하고 가는 그런 물길의 장대함 같은 모습이 강렬했다. 전국 곳곳에 자유 발언대가 마련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 회상은 촛불이 시작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말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내가 나라를 걱정할 자격이 있는가, ‘그럴 만큼 아는 게 많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나는 내 슬픔과 분노, 걱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기를 망설였다……. 나는 촛불문화제에 처음 참여하면서 자유 발언을 할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역시 ‘내가 말을 잘해 봐야 얼마나 잘하겠나’라며 사람들 사이에 숨는 것을 택했다……. 어느 자리든 내 생각을 펴는 데 주저한 적이 없었는데도 유독 두려워하고, 말을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강박 관념을 갖고 있었다. 사실 쓸데없는 족쇄였다. 내 생각이 옳든 그르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저 진솔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유 발언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아 버렸다. 수학여행을 못 가게 돼 불쾌하고 억울하다는 중학교 2학년, 단원고 학생,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여행객들도 잊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하는 아주머니, 모두 자신이 받아들인 대로였고 특별히 화려하게 말하려 하지도 않았다.¹⁾

말하기를 망설이던 이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하며 숨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었고 말하기 시작했다. 골방과 구석에서가 아니라 광장과 대로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쏟아 냈다. 삶과 혼연일체가 된 진솔한 말이어서 화려한 수사나 논리가 없어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사람의 말들을,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광장은 이런 말문의 열림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1) 하승우 외(2017), “아래로 더 아래로”, 《11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삶창, 37쪽.

분출과 격동

폭우 뒤의 거센 물결에는 온갖 종류의 물과 흙, 자갈과 물건들이 뒤섞인다. 여러 지천들에서 몰려든 물이 큰 홍수를 이룰 때 삼시간에 강둑을 위협하고 모든 것을 삼킬 듯 격동한다. 그 장대한 포용, 온갖 것을 집어삼키는 역동성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원시적 힘, 자연의 시원함을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광화문에서 터진 말문은 폭우 뒤에 급격히 불어오는 물살처럼 거대한 규모로 분출했고 날선 부딪침의 격랑을 통해 다중(multitude, 多衆)의 힘, 두려운 집단의 일단을 보여 주었다.

그동안 말문이 막혀 답답하던 사람들이 떠나없이 합류하게 되었을 때 표출될 말의 내용은 제각각이고 그 결도 다양했다. 세월호 이래 도대체 이 나라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느냐는 회의감으로 속상했던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얼 했는가를 따져 물었다. 강남역에서 살해된 여성에 대한 안타까운 위로를 공유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일 년여 병상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다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애도와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분노도 여과 없이 표출되었다.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권력 기구의 가혹함, 그것을 숨기는데 일조했던 사회 엘리트층에 대한 강한 규탄도 담겼다. 환호와 자부심, 각오와 함께 비난, 두려움, 염려도 뒤섞였다. 어른들의 말, 여성의 말, 학생의 말, 청년의 말, 아이들의 말, 노인의 말이 뒤섞였다. 정치인의 말, 소장인의 말, 지식인의 말, 노동자의 말도 뒤엉켰다. 이런 여러 갈래의 말들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말로 모였다. 국회와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말은 사실 매우 낮설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이다. 이전에도 이런 말을 하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민들은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말문이 열리고 제각기 가슴속에 있는 답답함이 터져 나오자 이 무거운

말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함께 쏟아졌다.

물론 환호와 격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난의 말들도 함께 커졌다. 한 언론이 '각성한 시민들의 민주적인 행동'이라고 상찬하면 다른 언론은 '중북 세력과 사회 불만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주의의 역동적이고 살아 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해설가 옆에는, 그들을 잘못된 가짜 뉴스에 속아 동원되고 있는 무리라고 폄하하는 전문가가 자리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다른 말들, 생각들, 느낌들이 제각각 터져 나왔고 어떤 권위도 작동하지 못한 채 한 데 뒤섞였다. 그리고 그런 뒤섞임 자체가 다시 말들의 격랑을 더 심화시켰다. 광화문에 촛불과 함께 태극기 부대라는 또 다른 집단이 등장한 것은 이런 격랑이 거대한 두 물줄기로 나누어져 흐르는 모습이었다. 태극기 부대에 참여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말을 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탄핵 반대라는 말을 내세워 자신들의 억울함, 좌절감, 소외감을 표현하고자 했고 사회가 자신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다. 직업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고 싶은 은퇴자들, 점점 약해지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어떻게든 세워 보고 싶은 아버지들, 목숨 걸고 나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예비역들, 잘 모르지만 박정희 정권 이래 산업화의 일꾼으로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이 겪고 있던 내적 허탈함, 야속함, 자괴감, 분노감도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촛불과 태극기는 서로 다른 말들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폭우로 생겨난 같은 격랑의 두 줄기였다. 이 두 집단이 거대한 시위를 계속하면서도 별다른 상호 충돌을 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그들 모두가 상대방의 존재에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흥미롭게도 촛불의 공간에서는 해학과 풍자의 말들도 함께할 공간이 있었다. 이상한 이름의 깃발들은 무거움으로부터 일탈하려는 자유로운 말, 개성적인 언어가 전체 속에 파묻히기 싫다는 적극적 표현으로 읽혔다.

‘장수풍뎡이 연구회’, ‘혼자 나온 사람들’, ‘민주묘총’, ‘트잉여 운동연합’, ‘범야옹 연대’, ‘사립 돌연사박물관’, ‘양배추 시식연합’ 등의 깃발들은 광장이 어떤 권위 있는 말들로 지배되거나 특정한 생각이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 누구라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상징적 행동이었다. 시민으로의 각성과 정당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공격도 나타났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혐오적 배설도 적지 않았다. 북한, 민주화 세력, 특정 지역, 여성, 이주 노동자 등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저격 대상으로 상정된 터무니없는 말들이 이런 저런 형태로 표출되기도 했다. 그런 말들의 정치적 지향은 매우 달랐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 상처를 말로 표현하려는 욕구는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정제됨과 하나됨

촛불 시위가 지속되면서 말들은 대의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집단 지성이라 할 정도의 정제됨을 보여 주었다. 아마도 그 일차적인 요인은 말의 격량이 가져올 수도 있을 무질서, 폭력성에 대한 공통의 염려가 아니었을까. 말을 외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폭력에 대한 거부감, 혁명에 대한 주저함이 공유되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폭동을 일으키는 다수, 감정에 휘둘리는 집합체로서의 균중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 저들은 폭력 집단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며 조만간 그러한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되는 비난에 빠지지 않으려는 강박적 경계감을 공유했다. 경찰의 차벽 앞에 스티커를 붙이는 시민, 전경들이 타고 있는 경찰차에 꽃을 전하는 신부, 시위 후의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은 질풍노도와 같은 자신들의 힘이 정제된 메시지로 결집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그런 행동으로 표출했다. 촛불 시위대 속에서 자주 들렸던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전경도

같은 시민입니다라는 말들은 폭력화로 치닫지 않으려는 경계감, 자기 통제의 작동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외치는 말 대신 작은 소리들의 결집을 표현하고자 했다. 권위적인 말보다는 자유롭고 소통적인 말을 원했다. 실제로 촛불 현장에서는 정치인이나 운동권의 지도부가 발언하는 것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발언을 막기도 했다. 그 결과 이전의 각종 시위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표현들이 종적을 감추었고 노동자 대단결, 민중의 대오, 강력한 투쟁, 적들에 대한 공격 같은 말들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일상의 삶에서 묻어나는 말들, 살아 있는 말 그대로의 표현들이 전달되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말들이 별다른 갈등과 긴장 없이 한 자리에 머물면서 교감하는 현장이 될 수 있었다. 열려진 공간, 누구라도 자신의 말을 하면서 서로의 말을 들어 주는, 그러면서 즐기는 말놀이의 자리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독특한 경험을 구호로, 주장으로, 누리소통망(SNS)으로 표현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즐겼다.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조차 주장하는 말의 내용은 달랐지만 미묘하게도 하나의 공유되는 인식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국민'이며 공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자의식이었다. 자신들의 의견을 폭력이나 무법으로써가 아닌 정당하게 표명하는 한, 그것을 탄압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권리 주체로서의 각성이 가시적으로 공유된 것이었다. 시위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말들 역시 그것을 중심으로 결집되었다.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말은 일상의 용어이기 어렵지만, 사회 교과서에서나 볼 것 같은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슬로건이 된 것은 그만큼 촛불의 경험이 시원적인 정치 공간을 마련해 주었음을 의미한다. 너도 국민이고 나도 국민이며 우리 모두는 국민이라는 이 말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유되면서

광화문의 모임은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다. 분노하는 격량의 수준을 넘어서 어떤 방향, 지향, 요구가 담긴 언어의 대화가 된 것이다.

나는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말 앞에서 도도히 흐르는 대하의 힘, 격량의 원초적인 힘을 느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스스로에 대한 정체감을 규정하고 자부심과 존재감을 재구성하는 힘을 지녔다. 제각각 자신만의 분노, 감정, 요구를 담고 있었지만 이 말을 함께 공유하는 순간 이들은 국민으로서의 동질감을 공유했다. 국민이라는 말의 외침은 살아 있는 주권자의 새로운 자각이고 정치적인 각성이기도 했다. 국민의 등장, 국민으로서의 재인식, 국민이라는 자의식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상황은 일상 속에서 맛보기는 어려운 경험이었다. 그 말은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을 넘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집합적 명령으로 울려 나왔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직후 터져 나온 ‘우리에게 사회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서로의 책임과 공감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각성으로 되살아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생경한 헌법 조문을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최후로 보호받고 의지할 공동체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각성의 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모아진 함성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대변화가 결정되는 순간의 환호성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말을 외치던 그 현장은 정치적인 민주화 운동이기 이전에 혼란스럽던 자신의 정체감을 재확인하고 소속된 공동체의 성격을 재조명하려는 문화적, 언어적 실천이었다.

성찰, 일상, 그리고 남은 말들

폭우가 잦아들고 빗줄기가 약화되면 물살도 조금씩 유순해진다. 그리고 노도와 같은 격량의 파고도 조금씩 낮아지고 마침내 평소의 유유히 흐르는 회복한다. 촛불과 함께 격동했던 말들도 마찬가지로. 공공의 장소에서 속에

있던 말들을 마구 풀어놓을 수 있었던 특별한 현장에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한번 열린 말문은 그냥 이전처럼 닫히기보다 스스로와 주변을 향한 성찰과 반성, 각오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진주 지역의 19세 청년이 자유 발언으로 행한 말들은 유튜브(youtube)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내 안의 박근혜를 발견하고 내 옆의 최순실에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돈이나 자신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돈과 이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쟁 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람답게 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²⁾

이런 말들은 바깥을 향한 비난과 공격이기보다 자기 내면을 향하고 일상 생활의 방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새로운 언어였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남이 단순히 타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라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상의 잘못된 관행과 생각들을 바꿔 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각오의 말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촛불은 모처럼 신성한 공동체를 확인하는 집합적 의례가 된 셈이었다. 사회학자 벨라(Robert Bellah)의 견해를 빌리면 일종의 시민 종교적 경험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육장에서 듣는 훈계보다도 더 의미 있는 성찰의 장이 되었다.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 교육의 효과가 있기를 바랐다는 말들은 그런 점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특별한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다시 이전의 문제들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2) 진주 촛불 집회 19세 청년의 자유 발언, 유튜브(youtube) 영상

정치 세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일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가슴 속에 답답했던 말들, 하소연하고 싶었던 말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일부 정치적인 목표를 중시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평범한 직장인, 여성, 학생, 청년, 아이들, 노인들이 다시 돌아갈 일상은 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 사회학자가 ‘광장의 조증과 일상의 우울’이라는 대비로 표현했을 정도로 일상은 여전히 많은 문제, 해결되지 못한 긴장, 불분명한 미래로 가득 차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일상으로의 복귀는 다양한 사람들, 집단들 나름으로 새로운 적응을 필요로 한다.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은 다음 정권, 새로운 변화에 미루어 놓을 수밖에 없다. 그 기대가 클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는 정도만큼 일상의 복귀가 순조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촛불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큰 사람들, 자신들의 목소리가 다시 묻히게 되리라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은 일상으로의 복귀가 우울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거대한 촛불의 물결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부각되지 않은 것을 애석해했다. 과거의 사건들은 제대로 밝혀지고 처리되리라 기대할 수 있지만 취업난과 고용 불안, 삶의 고단함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 그대로였다. 촛불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말을 쏟아 냈던 태극기 참석자들은 더더욱 일상으로의 복귀가 힘겨웠을 터이고 그럴수록 자신을 지켜줄 말들이 필요했다. 자신의 정체감과 존재감,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말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분노, 좌절, 수치, 연민, 동정, 회한 등 각자의 감정의 결을 새롭게 조율하는 일도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바깥으로 두드러지게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새로운 전망, 주체적 각성이 다져졌음은 주목할 일이다. 아마도 가장 특기해야 할 것은 여성들이 그들만의 시선으로 현실을 평가하고자 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최순실, 정유라 등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우연히도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여성 비하, 여성 혐오의

말들이 나타났을 때 과감히 정치적 잘못을 젠더(gender)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촛불의 대의 속에 부끄러운 성추행이 숨겨 있음을 폭로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러한 비판은 유명 정치인의 사과를 이끌어 냈고 유명 연예인의 공연을 중단시켰으며 집합적인 반성을 이끌어 냈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여성들의 말하기가 시작된 것은 꽤 오래되었지만 공적인 공간에서 이 문제가 본격화되는 데 이번 촛불은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촛불 집회의 과정에서 등장한 다음과 같은 발언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이 어떤 배경에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대통령이 바뀌든 바뀌지 않은 여성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는 조금도 타격받지 않는다. 그러니 여성들이 굳이 집회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여성 혐오적인 구호로 정의와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은 여성의 생존과 관련된 싸움에는 연대하지 않는다……. 현재의 집회는 남성 중심의 질서로 구축된 국가를 남성 중심의 방식으로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맨스플레이일 뿐 여성을 위한 싸움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³⁾

오늘의 ‘미투’ 운동은 현실의 젠더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여성 주체들의 말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갑을 관계’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미투’ 운동에 예표적 움직임이기도 하다. 말들이 결집되고 표출되며 격량을 이룰 방식도 다양해질 것이며 개성적인 주체들의 자기 정체성 역시 그런 과정에서 또렷해지고 명료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상의 회복과 함께 광화문에 모였던 말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다시 각자의

3) 하승우 외(2017), “광장의 페미니스트, ‘함께’와 ‘우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나영)” 글 속에 실린 ‘바람계곡의 페미니즘’ 누리소통망 글, <<11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삶창, 63쪽.

영역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말문을 열고 말들을 조직하며 말들을 표출하는 과정에 있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이름으로, 학생의 이름으로, 주민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제각각 말하기의 역량이 커질 것이고 그것은 한국인의 일상, 민주적 생활 감각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다. 일상의 평범함을 뛰어넘는 광장의 역동성, 내면의 말들을 목청껏 쏟아 낸 걱정 of 경험, 그 거대한 목소리로 얻어 낸 정치적 성과들은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주체의 언어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주위에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어떤 말들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